

글 잘쓰는 민족

朴澤奎
(建國大교수·化學)



목소리가 큰 것과 일조시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미있는 비유가 있다.

일조시간 즉 햇볕이 반짝이는 낮 시간이 긴 나라 사람일 수록 목소리가 유난히 크다는 것이다.

이태리·스페인등 유럽남부지방은 일조시간이 비교적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로마나 베니스등 이태리에 광장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즉, 낮이 길고 또 따뜻하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넓은 광장에서는 마음껏 떠들어도 남에게 별로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독일은 일조시간이 짧아서 좁은 공간인 방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 말소리의 톤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큰 목소리로 떠드는 이태리인들의 음악적 취향도 이런데서 발단되었다는 음악가의 해석이 있다.

우리나라도 일조시간이 길어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큰편에 속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밖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댈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더우기 목청을 돋구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국민들의 기질을 낙천적인 방향으로 양성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멋진 음악이 탄생된다고 하니 금상첨화라 아니할 수 없다.

요새처럼 좁은 공간에 갇혀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우리로서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였가는 소음공해의 주범으로 몰려 따돌림받기

상일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병환자로 오해받게 될지도 모른다.

말소리가 큰 것, 높은 톤의 성악이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일조시간이 긴것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도 흥미로운 이야기이지만 말하는 솜씨가 어느 만큼 뛰어난가 하는 것도 나라에 따라 다른면은 없는가 생각해 볼만도 하다.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말솜씨가 좋아서 상대방을 쉽게 설득시키고 또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속담에 말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말잘하는 민족을 선택하려면 선뜻 대답하기에 어려울 것이다.

자기의 의사를 조리있게, 일관성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민족을 손꼽기란 쉽지 않을터인데 이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말하는 민족을 들라면 이태리인도 빠지지 않을터이고, 학교교육에서 말잘하는 훈련을 가장 잘 받는 국민들도 역시 이태리인이다.

이태리에서는 고교과정에 반드시 구두시험이 있으며, 졸업시험에서도 구두시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남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다해도 그것을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어린이나 어른 할것 없이 서양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구김없이 표현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특히 텔레비전카메라가 비추는 길가에서 마이크를 잡고 신나는 자세로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남녀 노소할 것 없이 텔레비전 마이크 앞에서 인터뷰에 자연스럽게 응하는 것을 보면 많이 변했구나 하는 느낌도 든다.

자기의 뜻을 거침없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보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 잘하는 것 못지 않게 자기의 뜻을 아름다운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입시계절이 되니 특별히 생각나는 일이 있다. 1986학년도와 87학년도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논술고사에서 직접 출제와 채점에 관여했던 필자로서 이 논술고사에의 미련과 아쉬움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채점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전반적으로 첫해보다 두번째해에 응시생들의 문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초·중·고시절에 독후감쓰기나 작문시간등이 빈번히 있었겠으나 대입고사에서처럼 절박감을 느끼면서 훈련을 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대학입시에 이런 과목이 부과되고 보니 정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훈련을 쌓았던게 분명하였다.

미국 고교생들의 에세이가 대학입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나라처럼 학교교육에서 글쓰기 훈련에 소홀한 나라도 드문것 같다.

말 잘하는 민족으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한글을 아름답게 구사하여 아름다운 문장으로 꾸밀 수 있는 그런 품성좋은 국민으로 양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알퐁스·도데의 '마지막수업'에서 아멜선생의 프랑스어에 대한 사랑은 그의 애국심과 애향심을 감동적인 언어로 묘사한 장엄한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학교 과정을 식민지시대 일본어교육으로 빼앗겼던 50후반의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본능적이라 할만큼의 집념을 가지고 우리 글을 사랑

하는 그런 마음은 논외로 하고라도 해방후 세대, 특히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뜻을 글로 옮겨 나타낼 수 있는 훈련을 쌓게 해주는 일은 우리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다음 세대들에게 인생을 그저 요령껏 사는 방법만을 가르치는데 치우치지는 않았는가, 4지선단형적 인생관을 터득하고 그런 방법만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글을 제대로 올바르게 쓰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인생을 보다 더 진지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며, 모든 일에 항상 신중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록으로 남는 글을 통해서, 자기가 한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키우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리만큼커서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을 리듬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우쭐대는 국민이다.

그래서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교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모국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래어의 유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외래어로된 과학기술용어 마저도 프랑스어로 표현하여 보급할 정도이다.

문장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학입시에 논술고사를 다시 부활시키려면 입시당사자나 학부모들로부터도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편지를 받을 일 이겠으나 「부모님전 상서……」하고는 딱 막혀버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 한장 제대로 못쓰는 대학생을 배출시켜 어찌겠다는 이야기인지.

몇년 후라도 좋으니 계획적인 교육을 통해 말도 잘하고 글도 잘쓰는 그런 진짜 문화민족이 되어 보고 싶지 않은가.

언어교육, 문장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모든 국민이 책을 많이 읽고 자기 뜻을 글로서 점잖게 표현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했으면 하는게 바람이다.